



970호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외대학보



4 우리학교 신설부처 소개 7 룸메이트의 속사정 9 일상의 섬세한 관찰, 일본문학 12 김상국 비타민하우스 대표의 성공 드라마

또 한 번 학교 밝히는 '외대스캔들'

서울배움터 제 48대 총학생회 '외대스캔들' 선본 당선

〈외대's candle〉



사진 김태훈 기자

지난 해 11월 선거 무산 이후 150여일 공백이었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자리가 채워졌다. 이번 달 2일 서울배움터 제 48대 총학생회 재선거 결과 김범(국제 11) 정후보와 이지원(동양어·인도어 12) 부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1, 2일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총 투표 가능인원 8395명 중 2774명이 참여해 33.04%의 투표율로 성사됐다.

2013학년도 제 47대 총학생회 '외대스캔들'의 기초를 이어 선거운동본부를 꾸린 김범, 이지원 후보는 2263표를 득표해 81.58%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대표는 199표(7.17%), 무효표는 311표(11.21%)였으며 오차 1표(0.03%)를 기록했다. 김범 정후보 당선인은 "선거운동원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에 참여한 학우들에게 감사하다"며 "1년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원 부후보 당선인 또한 "8000명의 학우들을 위해, 하나 되는 외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다짐을 약속했다. 조봉현(사범·영교 09) 전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오랜 기간 학교에 관심을 가져온 만큼 외대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세련된 총학생회 운영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하도경(동양어·마인어 13) 양은 "좀 더 친근한 총학생회가 돼 일반 학생들도 학교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적극적인 수업권 보장 △총학생회칙 신설 및 정비 △학생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학사제도 관련 공약으로는 불필요한 원어 강의 신설 금지와 철저한 원어강의 운영, 저장단과 중앙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설을 통한 무작위 학사제도 개편 방지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총학생회칙 관련 공약으로는 학생총투표 제도와 정책투표 제도 신설, 선거 무산 시 총학생회단 임기 연장안과 특별기구 회칙 정상화 등 학생회 내부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를 이뤘다.

복지 공약으로는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제 2 도서관 공약 문서화, 휴연구역 설정, 지하캠퍼스와 교수학습개발원 지하 공간 등 학생자치공간 24시간 개방 등을 발표했다. 유엔협회사계연맹(WFUNA)에서 진행하는 대표적 사업 중 하나인 'Advanced Training at the United Nations'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UN 뉴욕 본부와 제네바 본부 등에서 5일간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한편 서울배움터 단과대학도 모두 학생회 구성을 마쳤다. 상경대학은 김진성(상경·경계 09) 군, 서양어대학은 김동규(서양어·노어 12) 군, 일본어대학은 박지영(일본·일본 11) 양이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박지영 일본어대 학생회장은 "늦게 당선된만큼 일본어대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응원과 조언을 부탁했다.

▲오른쪽부터 김범(국제 11) 총학생회장 당선인, 이지원(동양어·인도어 12)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제 48대 총학생회로 들어서게 된 '외대스캔들'은 주요 공약으로 △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글로벌 첫 비대위 정기총회, 역대 최다 학생 참석

"이제 하늘높이 풍선을 날려주세요!" 8일 오후 6시 반부터 글로벌배움터 노천극장에서 2014학년도 상반기 정기학생총회(이하 정총)가 열렸다. 회의 시작 전 참석한 학생들과 헬륨풍선을 나눠 갖고 다함께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총은 글로벌배움터 역대 첫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개최했다. 정총은 총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 비대위 활동보고, 상반기 계획보고, 논의 및 안건 등, 2부에서는 글로벌배움터의 새내기 맞이 행사인 해오름식에서 두각을 나타낸 신입생들의 공연과 다양한 행사로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번 정총에는 의결 정족수인 재학생 1/10을 한참 넘는 16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정총 중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

1부 활동보고에서 홍성훈(자연·수학 08) 비대위원장은 '교내서플라이 캠페인'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앞으로 더 보기 좋은 학교생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분관 건설 진행사항 브리핑에서 "6월에 완공될 신분관에 커피 및 디저트 전문점 '망고식스'가 입점될 예정이며 많은 강의실이 생겨 앞으로 질 높은 학교생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논의 및 의결안건에서 △글로벌배움터 2014년도 총학생회 회칙 검토 및 인준 △등·하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분당권 상시 셔틀버스 확충요구 (서현, 죽전) △'11대 교육환경개선안' 검토 및 인준 △학교 공간조정위원회의 학생참여 및 공간조정사유 열람 요청 4개의 항목에서 모두 과반수의 학생이 찬성해 의

결됐다. 특히 3번째 안건 '11대 교육환경개선안'에는 본·분교 통합에 따른 캠퍼스 간 학사제도 운영방안의 올바른 이행요구, 구 기숙사 전면 리모델링 요구, 성적공개 시스템의 개선 요구, 각 건물별 시설 문제 개선 요구 등의 안건이 포함됐다. 이에 약 1300명 이상의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찬성을 표했다. 입학 후 정총에 처음 참석한 신입생 임정현(국제지역·브라질 14) 군은 "추운 날씨지만 내 의사가 반영된다는 사실에 계속 앉아있게 됐다"며 뿌듯함을 전했다. 또 우성원(통번역·중국어 12) 중국어통번역학과 회장은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정총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해줄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발전하는 글로벌배움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설립자 동상 제막 반대

18일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연이은 기념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오후 4시 오바마홀에서 진행될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 본관 앞에서 우리학교 설립자인 고(故) 김홍배 박사의 동상 제막식이 개최된다. 오후 7시 오바마홀에서 열리는 외대인의 밤 행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김 박사의 친일 행적을 이유로 동상 제막에 반대하고 나섰다. 7일 학교 상징물 선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배제한 동원육영회와 이 사실을 목격한 학교본부의 사과, 동상 제막식 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동원육영회와 학교 본부로 발송했다. 이어 8일에는 동상 제막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1938년 노다피복공장을

세워 군복 등을 납품했고, 1943년 국민총력 경성부연맹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김 박사는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으나 수록 기준에 미치지 않아 등재되지 않았다. 하지만 11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이후 친일 행적이 더 발견돼 친일인명사전 개정증보판에 수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총학 당선 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부터 끊임없이 논의돼 온 문제다. 3월 30일 열린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는 추후 세워질 제 48대 총학이 전학대회를 소집해 동상 제막 반대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학은 이번 달 7일 동상 제막 반대 성명서 채택을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해 14일 의결할 예정이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 표지(285mm x 255mm) ▲ 인명 인덱스 (260mm x 215mm)

▲ 외대학보 인명인덱스 1권 및 DVD 10개

개교 60주년 기념 외대학보 1955-2014 Archive DVDs 출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59년 역사를 10개의 DVD에 담아 출판하였습니다. 이 DVD는 대학의 발전과 희망, 그리고 대학 신문기자의 꿈과 눈물, 이상과 청춘이 모두 담겨있는 영혼의 기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대학보 DVD가 필요하신 동문께서는 발전기금(학생기자장학금지정 사용) 30만원이상을 기부하시면 DVD 1세트를 보내드립니다.

-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05-031630, 한국외국어대학교
- 외대신문사 : 02-2173-2502

* 입금 후 외대신문사로 성명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사

학내 브리핑

오픽(OPIC), 할인된 가격으로 응시할 절호의 기회

이번 학기부터 경력개발센터에서 오픽 대학연합과 협약해 응시료부담을 덜 수 있는 특별시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중전공 신청·변경 놓치지 마세요

5월 1일부터 9일까지 2학년~4학년 재학생 중 이중전공 변경 또는 신규배정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중전공 변경 신청을 받는다.

후기이중전공 희망자 신청하세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후기이중전공 이수자 선발 신청을 받는다. 기존 복수전공을 대체한 후기이중전공은 부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 1~2학기를 더 등록해 이중전공 학위를 받는 제도다.

갈등의 종식, 하나된 LD학부로

LD학부 학생회가 지난 3월 28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친 창립총회를 통해 하나된 LD학부를 선언했다.

이번 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주재로 진행됐다. LD학부 총회를 비대위에서 진행한 것에 대해 조봉현(사범·영교 09) 전 비대위장은 "LD학부 학생회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LD학부 내에서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비대위가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첫 번째 총회는 28일 오후 7시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LD학부 정원 193명 중 81명의 참석으로 개최됐다.

들은 사회과학전공과의 공동학생회 운영이 아닌 독자적인 학생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대다수 신입생은 이러한 상황을 총회에서 처음 알게 됐다. 김영진(LD 14) LD전공 1학년 대표는 "이상한 LD학부장을 통해 LD전공이 독자적인 신설학부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그동안 신설학부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불일치로 오후 11시까지 지속됐고,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한 채 휴회됐다.

3일 뒤인 31일 오후 7시 사회과학관 206호에서 두 번째 총회가 65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공동학생회 운영과 학생회칙 수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LD전공 신입생들은 학생회 운영에 있어 소수인 LD전공자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학생회칙도 개정됐다.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총회를 개의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는 기존 결의방법을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공동학생회가 구성됨에 따라 LD학부 학생회장 재선거도 실시된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내부 불화로 파열음

지난 3일 장한민(일반·경영 13)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정하은(일반·글로벌문화콘텐츠 14)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서명운동을 벌이며 총학생회 내부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장 총학생회장은 △근무태만 △원우회비 납부 △직권남용을 탄핵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후 6일과 9일,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에는 총학생회장의 이름으로 공지가 게재됐다.

건이다. 이에 대해 정 부총학생회장은 "집행부원 해임에 대한 회칙이 애매하긴 하나 인사의 경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긴급 과대표자 회의가 중국어과, 영어과, 문화콘텐츠학과 등 6개 학과대표와 6명의 원우가 참석한 가운데 11일 서울배움터에서 열렸다.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다양한 주제로 세계를 듣다

양 배움터 재외공관장 특강 개최



▲재외공관장 특강은 외대인의 자긍심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난 2일 양 배움터에서 동문 재외공관장 특강이 동시에 개최됐다.

전영욱 주불리비아대사관 공관장은 중남미의 정치·경제·사회 현황에 대해, 권해룡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제2의 중동 불과 우리나라의 진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

행했다. 김경석 주교황청대사관 공관장은 이탈리아의 경제 및 산업, 박용규 주뉴질랜드대사관 공관장은 최근 국제 경제와 우리나라 외교과제를 논했다.

전영욱 주불리비아대사의 특강에 참석한 노무영(통번역·스페인어 13)군은 "코트라(KOTRA)에 관심이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대사님께서 직접 궁금한 점도 질문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유경 국제교류처장은 "동문 외교관 간담회를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 특강을 진행했다"며 "현재 우리학교는 외교분야에서 전성기를 맞고 있으며 이렇게 외교관 동문들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야간) 2014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4학년도 후기 입시전형 일정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원서접수, 면접전형일, 합격지표발표

*면접시험 고사장 및 시간은 추후 정치행정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합격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 시 예치금 등록기간이 별도 공지됩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공공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행정) 나. 언론홍보영상학과(신문방송, 광고홍보) 다.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4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정치행정전문대학원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 가. 장학금 특전(공무원, 언론인, 군인 등) 나. 본교(사이버한국외대 포함) 출신 성적우수자 입학금 면제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hufs.ac.kr/user/gspas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정치행정전문대학원)

TEL. 02-2173-2428~9, 3567 FAX. 02-2173-3358 (우)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2014학년도 후기 (특별&일반)전형 신입생 모집

글로벌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특징

- 신입생 입학장학금(성적에 따른 차등 지급) - 성적 장학금(재학생 80%)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학과별, 학기별 선발 지급) - 한국학과 외국인 장학금 - 포스코 장학금 - 외부 기관 장학금(KIEP-GPAS, KOGAS 등) - 본교출신초교 장학금 제도 - 3+제도(재학생 1학기 외국대학 수학 후 학점인정)

Table with 3 columns: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 문의처

TEL : 02)2173-2448, 2449, 2434 / FAX : 02)2173-3369 E-Mail : hufsgsias@hufs.ac.kr / Website : http://gsias.hufs.ac.kr



뒹뒹! 동아리박람회

글로벌배움터 동아리박람회 약1300여명 학생들 몰려...



▲글로벌배움터의 동아리박람회에서 한 남학생이 학생회관 앞 부스에서 다트게임을 즐기고 있다. 과연 당첨의 행운을 누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신입부원 모집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 27일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에서 동아리박람회가 개최됐다. 총 60여개의 동아리들이 저마다 신입부원 모집을 위한 홍보행사를, 이 중 8개의 동아리는 외부부스에서 동아리 소개를 진행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외비기다, 슬랩업 등 공연분과 동아리는 한편에 무대를 마련해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됐다. 동아리박람회 참여한 학생들은 메인부스에서 리플렛을 받은 뒤, 각 층에 위치한 동아리방을 방문해 총 6개의 도장을 받아오면 응모권 추첨의 기회가 주어졌다. 더불어 학생들은 학생회관 앞에 설치된 다른 부스에서 다트 등 3개의 게임을 즐겼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동아리를 홍보하기 위한 부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만화 동아리인 그림사랑의 부원 김수지(통번역·영어 11) 양은 “예년과 달

리 이번엔 신입부원 유치를 위해 타플렛PC체험, 전시회 등 다양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하늘사랑 회장 김철호(공과·전자 13) 군은 “신입부원을 맞이할 생각에 열심히 준비하고 홍보했다”며 “어느 때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굉장히 뿌듯하다”고 미소를 지었다.

행사에 참여한 이주희(경상·경제 13) 양은 “부원들의 친절한 설명으로 구경하는 내내 즐거웠다”며 “하루는 너무 짧아 자칫하면 구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학생을 위해 행사가 이틀로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윤학(자연·화학 10) 동아리연합회장은 “약 1300여명의 많은 학생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1학기 중 가장 큰 행사를 잘 마쳐서 좋다”며 뿌듯함을 전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우리학교 산악부 히말라야 미등봉 원정 나선다 산악부 창립 50주년 기념 루굴라 원정대 발대식 열어



▲산악부 50주년 기념 루굴라 원정대원들이 등반성공을 밝혀 하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학교 산악부가 네팔 히말라야의 미등봉인 루굴라봉(6899m)원정에 도전한다. 발대식은 지난 달 26일 서울배움터 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원정은 산악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김병준(무역학과 68) 단장과 임일진(서양어·독일어 88) 대장을 포함해 범원택(법·법 93), 이창희(경영·경영 03), 김기범(서양어·네덜란드어 06), 홍승기(국제지역·국제스포츠 10), 송민수(영어·영어통번역 10), 장성호(경북대 경제학과 08) 대원까지 총 8명이 루굴라 정복에 나선다.

발대식에는 이성하 대외부총장, 인채권(동양어·아랍어 79) 산악회장, 전현목 대한산악연맹 회장 등 학교 관계자 및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성

하 대외부총장은 “우리학교는 빈곤의 시기에 개척자 정신으로 세계에 나아갔다”며 “이러한 정신은 미지의 세계를 밝히는 산악인의 사명감과 같다”며 성공적인 원정을 기원했다. 인채권 산악회장은 “이번 원정은 산악회 50주년의 첫 출발을 잘 끊은 행사”라며 “산악부의 재도약과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정대는 4월에 출국해 약 한 달 반 동안 루굴라 등반을 할 예정이다. 김병준 단장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원정이라 생각하고 모든 대원이 안전하게 등반을 마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대의 유일한 여자대원인 송민수 대원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격려해줘 감사하다”며 “모든 대원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산악부는 루굴라 종주 이외에도 △5월 체육대회 △7월 백두대간 종주 △10월 창립기념식 △50년사 발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성환(사회·정외 64) 산악부 초대 회장은 “대학에서 산악부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임에도 이렇게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원정대를 꾸려 등반하는 모습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우리 학교의 호날두는 누구? 노어과 2년 연속 우승



▲최규호 노어과 축구팀 주장이 트로피를 들고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축구부 주최 ‘제 32회 외대월드컵’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월드컵에는 각 단과대학 및 학과, ROTC(학생군사교육단), ISO(국제학생회) 등 총 34개 팀이 참가했다.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축구부원들이 단체복을 맞추고 시축을 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 공식행사가 아님에도 현수막 제작 등 학교 측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해부터 단과대학이 광역모집을 하게 되면서 월드컵에 출전하는 과의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주최 측은 각 단과대학에서 출전 선수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월드컵 주최를 맡은 류희성(동양어·인도어 11) 축구부 주장은

“광역화가 되며 선수 구성이 다양했는데 선배들과 팀을 꾸린 과는 선배들과의 유대감을 키울 수 있었고, 신입생들로만 팀을 꾸린 동아어대는 동기간의 친밀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승전에는 노어과와 영어대학이 진출했다. 김인철 총장은 경기 시작 전 현장을 방문해 두 팀 모두 선수들과 악수하며 격려를 전했다. 전반 경기는 양 팀 득점없이 마쳤지만 후반 36분 이주송(서양어·노어 04) 군이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머리로 받아 낮은 선제골을 넣어 최종결과 1대 0으로 노어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최규호(서양어·노어 11) 노어과 축구팀 주장은 “연이은 경기로 체력적인 부담이 컸지만 경기를 위해 심신으로 많은 준비를 했다”며 “지난 해에 이어 연속 우승해 아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년과 달리 이번 해 월드컵은 광역화로 달라진 선수구성과 학교측의 지원으로 그 열기를 더했다. 모든 행사를 마친 뒤 류희성 축구부 주장은 “요즘은 신입생들도 취업에 도움되는 스펙 쌓기에 열중하다보니 학교나 학교 행사 참여도 점점 줄어들어 홍보하는 것이 나날이 힘들어진다”며 다음 월드컵에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열정과 패기로 뭉친 신입기자를 찾습니다!

외대학보사 89기 수습기자 및 사진기자 모집

모집기간 : 2014년 4월 30일(수)까지
모집대상 : 양 배움터 1학년 1학기~2학년 2학기 학생

지원서 마감일 : 4월 30일(수)
필기시험 및 면접일 : 5월 3일(토)
합격자 발표일 : 5월 4일(일)

지원서 수령 및 제출

- ▶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 ▶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031-330-3112

문의사항 연락처 : 신민지 편집장(010-4002-0299)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

미래위, 사업처 신설

우리학교 새로운 행정기관으로 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와 사업지원처(이하 사업처)가 출범했다. 신설된 미래위와 사업처는 김인철 총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총장선거 후보자 당시 김 총장은 '본분교 통합에 따른 학과 특성화 방안, 중복학과 조정 문제를 논의하고 대학발전 아이디어를 신속히 실행에 옮기기 위해 미래위를 설립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 전문 교육기관을 일원화해 운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처 신설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래위는 총장직속기관으로 학교 행정제도와 운영 개선을 위한 총장 자문 기구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연구 제도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행정 조정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위장은 최종찬 인도어과 교수가 맡게 됐다.

사업처는 사업본부(구 외국어사업본부)의 업무총괄기관으로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처장으로는 김중석 폴란드어과 교수가 임명됐다.

박성건 사업지원팀장은 "사업처는 우리학교의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특별기구"라며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사업본부 산하기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사업처는 앞으로 국내 최고의 글로벌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외국어교육, 글로벌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R&D(Research and Development) △글로벌 어학 학습을 위한 최상의 교육환경 △외국어, 지역

학, 통번역 등 각 분야 최고 강사진 확보 △전세계 87개국 538기관과 MOU 체결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운영된다.

사업본부의 산하기관으로는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외국어정규프로그램 운영 △한국어문화교육원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과정 운영 △FLEX센터의 FLEX정기시험 진행 △출판부의 포털업체 다국어 사전사업 제휴 △TESOL전문교육원의 TESOL 자격증 과정 운영 △통번역 센터의 통번역 용역 서비스 제공 △국제사회교육원의

기업체 위탁 학습 어학·지역학 교육 진행 △I-외대의 기업체·공공기관과의 MOU를 통한 영어캠프 운영 △영재교육원의 국내외 영재캠프 운영 등이 있다.

김중석 사업지원처장은 "우리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가치인 외국어와 지역학 교육을 기업체와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곳에 강의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밝혔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우리학교, 세계자연보호기금과 손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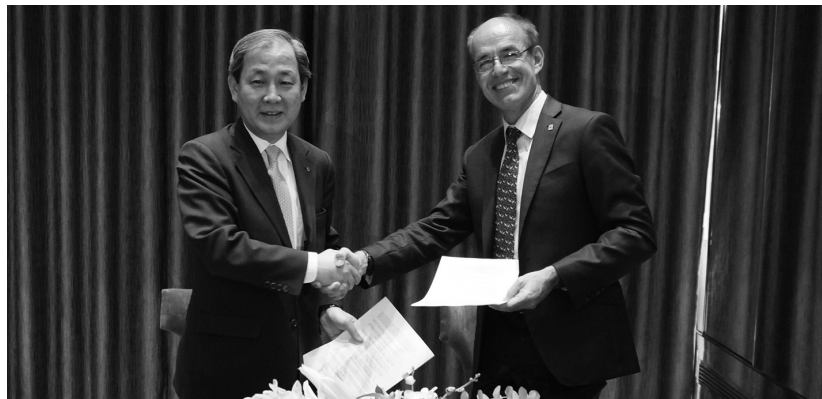


사진:홍보실 제공

▲교류협정체결식에서는 김인철 총장과 마르코 램베르티니(Marco Lambertini) 세계자연보호기금 사무총장이 만나 교류 협력을 체결했다.

지난 달 27일 우리학교와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약칭 WWF)의 교류협정체결식이 서울 밀레니엄호텔에서 열렸다. 자연보호를 위한 국제 비정부 기구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세계 최대의 환경 단체다. 90여개 나라의 5백만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돼, 15,000 개의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지구촌 한 시간 전등 끄기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개인과 회사의 기부가 수입의 90%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학교는 국제자연기금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학

술자료와 출판물 및 정보교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자연보호기금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세계의 사회적 기업들이 세계자연보호기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통번역서비스를 통한 밑바탕과 인력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날 참여한 김유경 국제교류처장은 "이런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역과 번역 서비스는 우리학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노조 사무실 본관 602호로 이전

3년 6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와



▲이전식과 함께 치러진 고사에서 신승철 노조 지부장이 축문을 읽고 있다.

우리학교 직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서울배움터 교수학습개발원 지하 103호에 있던 사무실을 본관 602호로 옮기며 3년 6개월 만에 본래 자리를 되찾게 됐다. 정재원 노조 사무국장은 "당시 학교의 일방적인 공간 조정으로 교수학습개발원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해 단체협약에서부터 꾸준히 요구해 마침내 돌아오게 됐다"고 과정을 밝혔다.

3일 오후 5시 새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전식에는 노조 조합원과 내빈 50여명이 참석해 고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먹는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김인철 총장이 축전과 화환을, 최홍희 서울배움터 부총장이 축전을 보내 기쁨을 나눴고 박용구 교

수협의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신승철 노조 지부장은 "노조를 학교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직원 대표라는 위상을 찾아줌으로써 정상적인 학교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무실 이전의 의미를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학내 구성원들이 막힘 없이 의견을 교환해 서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전식에 참석한 박혜신(중국·중국 09) 양은 "지하로 내려갔다가 원래 자리를 되찾은 것을 축하드린다"며 "더 나은 학교를 위해 앞으로도 학생과 노조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2014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

1. 전형 일정

구분	기간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 인터넷 작성	2014. 04. 28(월) 14:00 ~ 05. 09(금) 22:00	www.uwayapply.com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해당일 24시간 작성 가능
작성 서류 제출	2014. 04. 28(월) 14:00 ~ 05. 09(금) 22:00	교육대학원 (대학원 건물 111호)	우편 제출의 경우 05. 09(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면접 전형	2014. 05. 24(토)	대학원건물 해당전공 면접고사장	전공별 면접시간 5.23(금)14:00 교육대학원홈페이지 입시뉴스에 공지예정
합격자 발표	2014. 06. 12(목) 14:00 예정	gse.hufs.ac.kr홈페이지 공지	
합격자 등록	2014. 06. 16(월) ~ 06. 20(금)예정	우리은행 전국 지점	은행업무시간 내 인터넷뱅킹, 폰뱅킹 가능

※ 교학처 업무시간 : 14:00~22:00 (토, 일 공휴일 휴무)

※ 지원자 전원은 면접전형에 응시하여야 함

2.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 과정	모집 전공	모집인원
교육학석사	• 국어교육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 영어교육 • 어린이영어교육 • 스페인어교육 • 일본어교육 • 중국어교육 • 수학교육 • 역사교육 • 일반사회교육 • 컴퓨터교육 • 교육경영관리학사 • 상담심리 • 유아교육 • 다문화교육	000명

※ 교육경영관리학사, 다문화교육, 어린이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은 재교육 과정만 운영하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14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4학년도 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영어Writing 및 면접전형일	합격자발표
특별전형	2014. 04. 21(월) ~ 05. 08(목)	05. 17(토)	06. 02(월)
일반전형	2014. 05. 19(월) ~ 06. 09(월)	06. 14(토)	07. 07(월)

※ 면접시험 고사장 및 시간은 추후 TESOL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합격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시 예치금 등록기간이 별도 공지됩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교수학습지도학과(ELT)
 나. 영어교육콘텐츠개발학과(ELT CD)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4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TESOL대학원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영어Writing 포함)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에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학과별 약간 명
 나. 학점인정 혜택(한국외대 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 석사학위소지자)
 다.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라. Internship 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TESOL대학원)
 TEL. 02-2173-3521~3522 / FAX. 02-2173-3358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우크라이나인이 말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올레나 셰겔
(Olena Shchegel)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2013년 11월에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 이 사태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한국사람들은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 이 나라의 이름을 듣게 됐다. 필자는 한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으로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고 싶다. 그러나 최근 주변에서 오는 요청은 온통 '미안한 시위나 '크림반도 사태'에 대해 분석해달라'는 것뿐이다.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충분히 이해는 된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세계적인 '핫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과거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뉴스를 보며 애처로웠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내 그쳤다.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일상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었다.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기 위한 특공대간의 격돌이 극심했던 기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고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연 우크라이나만의 일인가? 나는 이번 사태가 현대 세계를 위협하는 몇

가지 위험요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러시아, 영국, 미국과 함께 부다페스트 협정을 맺었다. 협정의 내용은 '위 세 나라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합병해 협정을 위반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로 한 영국과 미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위험요소가 드러난다. 바로 각 국가들은 자국에 유리하지 않을 경우 다국 간의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점이다. 세계의 평화는 UN 등의 국제기구가 세운 법칙과 국가 간 협약들, 즉 국가 간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결의나 수많은 국제법을 위반하고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면 가끔 이런 댓글이 보인다. '크림반도는 본래 러시아 영토였기에 러시아에 합병되는 게 맞다' 또는 '크림반도 사람들이 참여한 투표로 러시아에 합병된 것이니까 문제없는 것 아니냐. '러시아민족이 많이 살고 있어서 러시아에 들어가는 게 맞다' 등이다. 이런 논리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군대를 보냈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펼친 것과 같다.

우선 '옛날 영토 되찾기'라는 논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오늘날의 세계지도도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는 러시아

도 위협받을 수 있다. 러시아는 역사 초기부터 다른 나라들의 영토를 빼앗아 왔고 근대에는 1939년 겨울전쟁에서 핀란드 영토의 10%를 합병하는 등 '영토확장 욕심'을 채우는 행동을 해왔다. 또한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기에 러시아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러시아에게 불리한 것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계의 여러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은 러시아 스스로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과 다를 없다.

게다가 만약 3월 16일에 있던 크림반도 투표를 정당하다고 말한다면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10일 만에 준비된 투표, 무장한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통제하는 상황, 투표 전 모든 우크라이나 언론을 차단하고 러시아의 선전방송만 내보내며 발생하는 정보결핍, 합병을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의 여론(우크라이나에서는 주민등록증 대신 국내 여권을 쓴다)을 무장한 러시아 군인들이 짊어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투표가 이뤄지는 게 가능했을 것 아닌가? 게다가 투표결과를 조작해 크림반도의 주요도 시인 세바스토폴은 인구의 123%가 투표한 것으로 발표했다. 사망자, 신생아까지도 투표한 셈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1938년 3월, 독일은 오스트리아에 사는 독일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병합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 괴뢰 수상을 앉혀 그가 독일군 투입을 요청했다는 핑계로 오스트리아에 군대를 투입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반대하는 시위 모습.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를 통제하고 있던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99% 이상이 독일과의 합병을 찬성했다. 그 다음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요구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체코, 모라비아, 리투아니아에 이어 폴란드를 공격했으며 끝내 2차 대전이 발발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자국 민족보호, 하나의 강대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다른 강대국들의 침묵, 군대통제 하의 조작투표,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움직임과 2차 대전 직전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독일에는 비슷한 점들이 너무나 많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크림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기서 그만 그칠지 바란다.

외대인이 만난 세계

포르투갈에서 정(情)을 만나다

포르투갈에 대한 첫 인상은 덥고 화창하고 평화로웠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흰색 벽돌에 빨간 지붕 집과 그 주위로 흐르는 투명한 강물. 내가 걷고 있는 사실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껴졌다. 그곳 사람들은 나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도시 내에 한국인뿐 아니라 동양인이 거의 없어 나는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Ola linda! Onde vais? 거기 예쁜 아가씨! 어디가요?' 라며 묻기도 하고, 아는 일본어, 중국어를 동원해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경험이 됐다.

수업과정도 한국보다 훨씬 흥미로웠다. 포르투갈 수업에서는 주로 내용이 생활에 직결된 부분을 배워 더 집중하게 되고 발음과 문화 수업도 재밌었다. 특히 언어수업은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다양한 유럽국적의 친구들과 함께했다. 첫 수업,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3~4개 국어를 할 줄 안다고 답했다. 물론 같은 언어권인지라 빨리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전공인 포르투갈어 하나도 잘 못하는 나와 너무 대조돼 부끄러웠다. 그 이후로 포르투갈어 공부에 더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다.

주말에는 혼자 도시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며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다니곤 했다. 처음엔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한두 마디씩 포르투갈어를 사용했다. 그 이후 지도 한 장 들고 다니는 혼자여행에 재미를 붙였다. 그러다보면 '길거리의 좋은 타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혼자 여행할 때였다. 맥도날드에 앉아 지도를 보는데 옆자리의 한 중년 부부가 "길 알려줄까?"하고 말을 걸었다. 부부는 친절하게 지도에 그림을 그려가며 길을 설명해주고, 후시 여행 중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며 휴대폰 번호도 알려줬다. 짧은 대화 후 아주머니가 여행 동안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란다며 꼭 안아주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30분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포르투갈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 덕분인지 포르투갈에 있던 동안 정말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다.

여행 외에도 같은 반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학교생활도 더 즐거워졌다. 저녁엔 바(bar)에서 만나 같이 춤추고, 시험기간엔 카페의 테라스에서 와인 한잔 마시며 공부하고 방학엔 같이 포르투갈 여행도 다녔다. 친구들도, 나도 여유로운 포르투갈 생활에 젖어있었다보니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언제 6개월이 지나갈까 생각했는데 막상 떠나려고 뒤돌아보니 지나온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마지막 돌아오는 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곧 다시 찾아오겠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귀국길에 올랐다. 포르투갈에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이나 물어보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다고 대답하겠다. 말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생각이 자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떠나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지송(서양어·포르투갈어 1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험

ING생명 사랑의 보험금 캠페인

'사랑의 보험금 캠페인'은 고객님께서 종신보험에 가입, 보험 수익자를 후원하고자 하는 자선단체 또는 학교로 지정하시는 선진 기부 문화입니다. 2001년 ING생명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래, 1,500여명의 고객님이 동참하여 기부를 통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말 기준)

「ING생명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단체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적십자재단


다일복지재단


굿네이버스


사망 유산 기부대체
기아대책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한국장애인재활협회
Korea Association of Parents of the Deaf


KALC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위 8개 단체 외에 비영리 법인 자선단체 및 학교도 수익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보험금 참여 방법 문의
ING생명 콜센터 1588-5005



사랑의 보험금 로고의 의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인 동그라미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배우는 이웃을 연결해주는 손을 형성하여 사랑의 보험금을 통해 고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기부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ING생명의 책임감을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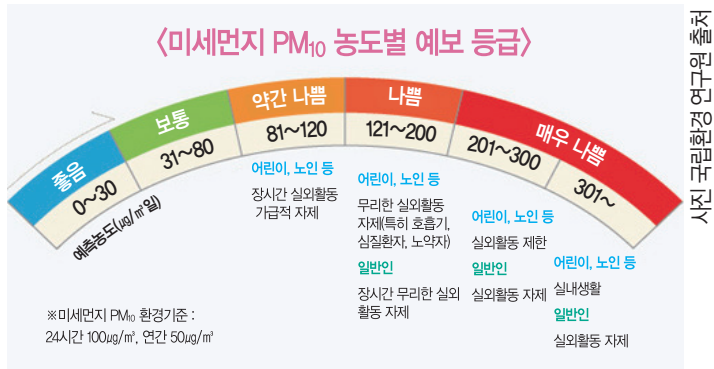
ING생명
www.inglife.co.kr



미세먼지와 황사, 소리없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한다

◆ 짙어지면 가는 미세먼지와 황사

지난 해 가을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악화되며 언론에서도 연일 미세먼지와 관련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해 8월 31일부터 이번 해 3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예보팀이 측정한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등급 결과'에 따르면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날이 잦아졌다. 지난 해 9월에는 '약간 나쁨' 예보가 2회에 그쳤지만 이번 해 3월에는 '약간 나쁨' 예보가 7회, 이보다 심한 '나쁨' 예보도 2회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이번 달을 '황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할 정도로 매년 3, 4월이면 찾아오는 황사까지 높은 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들의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 μg/m³ =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 공기 부피 1m³ 안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의 양(무게)을 의미하며 1μg은 10⁻⁶g에 해당한다.

◆ 황사와 미세먼지, 정확히 알자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 상층해 편서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으로 자연현상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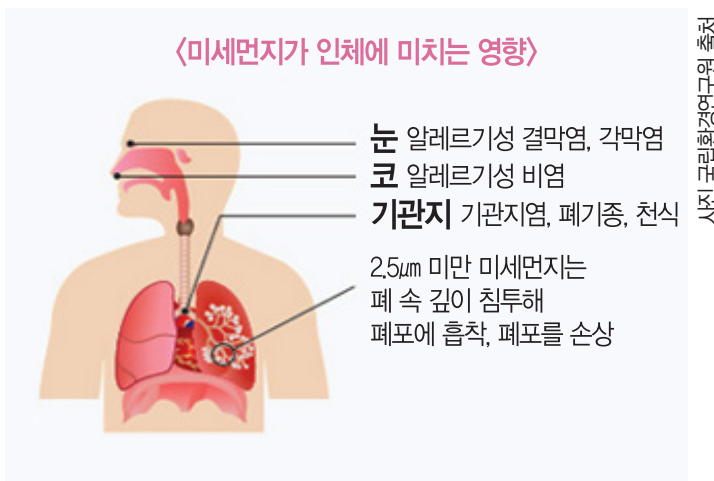


반면, 미세먼지(PM-10)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 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μm) 보다 큰 입자로 자동차,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로 인한 인위적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에는 황산염·질산염·암모니아 등 이온 성분과 금속·탄소화합물 등이 포함돼 있다. 10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 크기로 미세먼지는 직경이 머리카락 7분의 1이하 크기인 가늘고 작은 먼지입자이다. 작은 크기만큼 코털이나 기도를 통해 걸러지지 않고 대부분 사람의 폐포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김해정 우리학교 보건소 선생님은 "간단히 말해 황사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모래 먼지이고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로 쉽게 몸속에 침투할 수 있는 크기의 먼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주목받는 것이 초미세먼지(PM-2.5)인데 이는 미세먼지의 4분의 1크기 수준으로 2.5마이크로미터(μm)이하 크기의 먼지이다. 이러한 먼지는 사람의 호흡기로 걸러지지 않고 폐포는 물론 신체내부에도 그대로 흡수돼 심한 경우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조기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미세먼지와 황사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번 달 1일 장재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교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세먼지는 사망률,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 저체중 및 영아사망률, 그리고 폐암사망률 등을 높인다"며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난 해 10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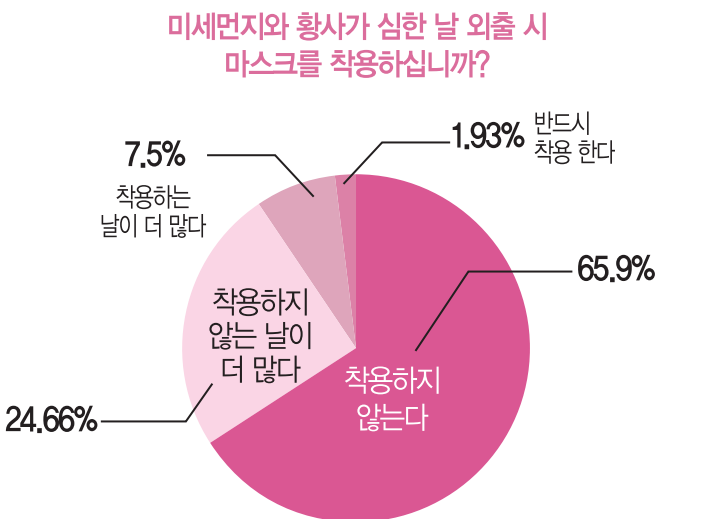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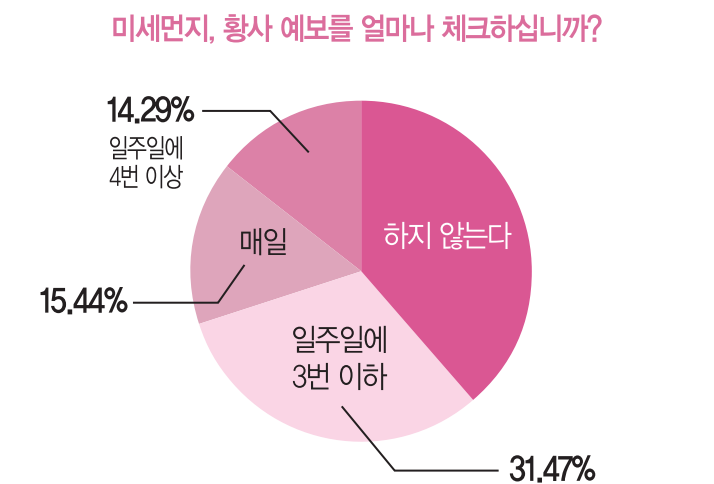


황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황사에는 실리콘, 알루미늄·구리·카드뮴·납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날아오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도 당연히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황사에 취약한 천식·만성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안과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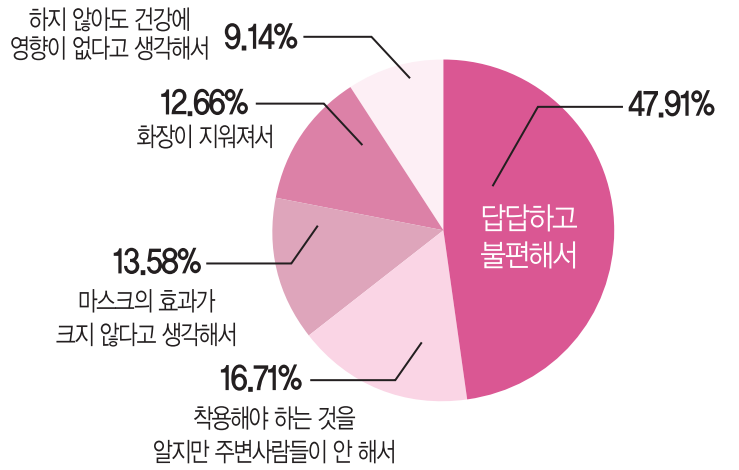
◆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응 부족

그럼에도 학생들의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아직 부족하다. 보도를 통해 계속해 황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됐지만 마스크착용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실천하는 학생은 드물다. 학보사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번 달 7일부터 10일까지 미세먼지, 황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대부분 학생들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와 황사가 예년에 비해 심각하다고(63.74%) 느끼고 있으며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인식(90.4%)하고 있었다. 또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 학생 중 대다수(72.09%)는 실제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날 신체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미세먼지, 황사 예보를 매일 체크하고(15.44%) 기본적인 대응방법인 마스크 착용을 매년 실천하는 학생(1.93%)은 매우 드물었다.

< 설문기간 : 이번 달 7일(월)~10일(목) 4일간 진행 >
< 설문대상 : 양 배움터 재학생 >



마스크 착용을 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한길수 동대문구청 맑은 환경과 주무관은 "공기가 안 좋은 날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야외활동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를 잘 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손과 코를 흐르는 물에 자주 씻는 것"을 당부했다.

◆ 실외행사와 실내공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필요

이렇게 학생들 개인의 대응이 부족한 것 외에도 학내에서 개최되는 운동경기, 야외공연, 축제 등의 각종 야외행사에도 대기오염정도가 반영돼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할 때는 창문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먼지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실내로 전해지기 때문에 실내공기도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날에는 강의실과 도서관의 실내공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양은지 동대문구청 맑은 환경과 주무관은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청소와 환기가 필수"라며 "대학교 강의실과 같은 작은 면적의 시설인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환기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의 경우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곳은 도서관 열람실뿐이며 이마저도 기기가 노후화되고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없어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윤이식 시설관리팀 팀장은 "서울배움터의 경우 학내 실내 환기 시스템은 도서관의 공기청정기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먼저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정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에서는 실시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곳에서는 회원가입을 통해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와 관련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문자발송으로 무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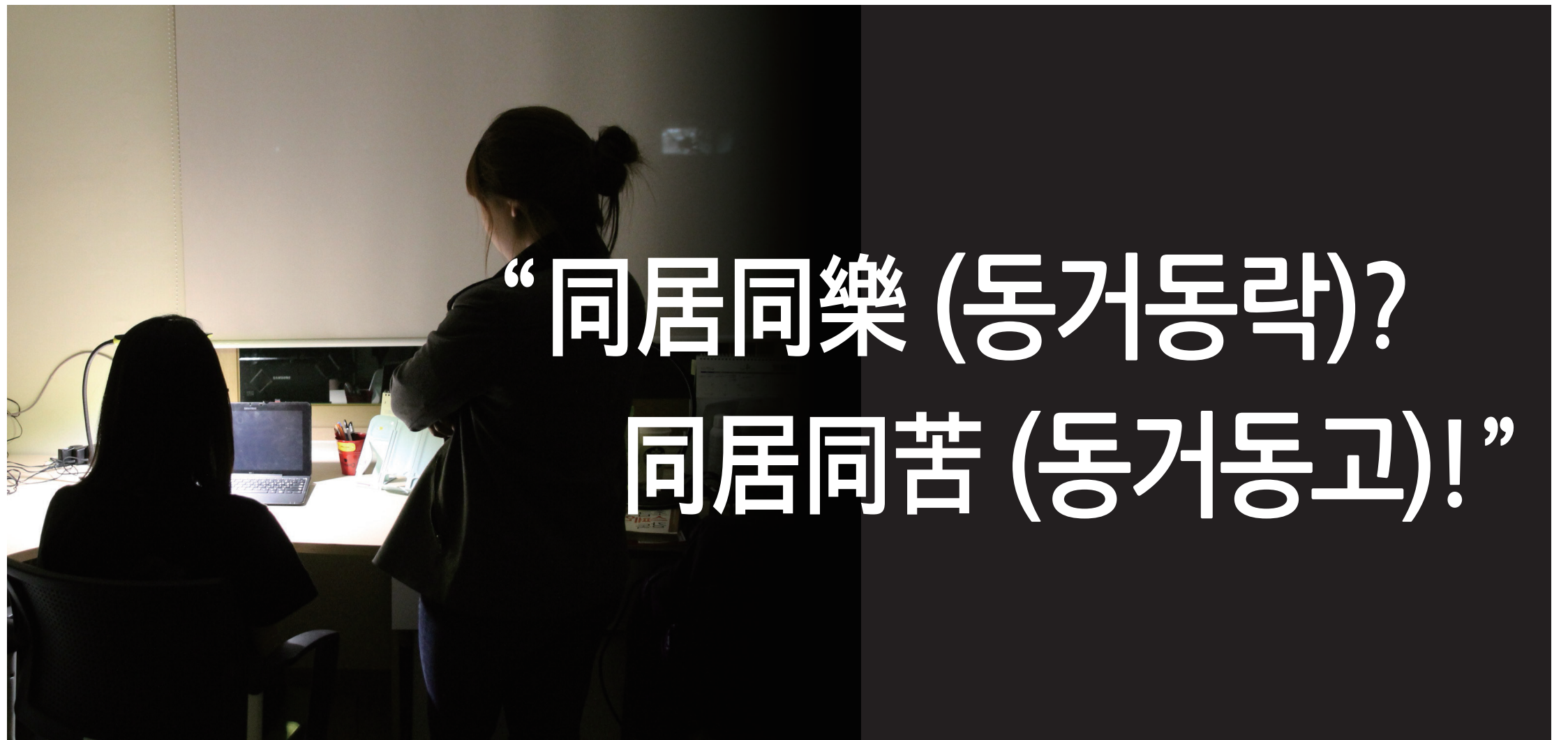
다음으로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날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불필요한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 행동요령을 권고하고 있다. △황사방지용 마스크 착용 △긴소매 의복·보호안경 착용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선글라스나 안경착용 권장 △야외에서 음식이나 음료 취식 금지 등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시에는 제대로 된 마스크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바른 황사마스크 구입법	내용
- 의약외품, 황사방지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황사마스크는 1회용이므로 세척해 착용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친 허가목록을 확인(ezdrug.kdca.go.kr)	
- 미세먼지 차단율(분진포집효율) 80%이상을 의미하는 KF80 이상 등급의 마스크를 사용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야외공기가 오염됐을 때는 실내공기유지도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미세먼지와 황사의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과 문은 꼭 닫아야 한다. 또한 청소를 자주하며 특히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주면 먼지를 잡을 수 있다. 이밖에도 건조할 경우 먼지가 더 발생하기 쉬우므로 실내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옷과 신발, 가방 등을 털어주는 게 좋다. 손과 얼굴 등 노출부위는 반드시 씻고 양치질을 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同居同樂 (동거동락)? 同居同苦 (동거동고)!”

룸메이트 때문에 고민하는 자... 그들의 ‘說(설)’에 주목!

오늘 아침도 눈뜨자마자 드는 생각은 무사히 하루가 잘 가기를 빌랄 뿐이다. 얼마 전 빨래거리 때문에 룸메이트(이하 룸메)와 싸웠던 일 때문이다. 다음 주면 시험기간인데 취침시간 때문에 얼마나 신경전을 벌일지 상상만 해도 걱정이다. 대학교 입학 후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는 우리들. 그러나 나를 눈치보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 '룸메'. 룸메와의 스트레스는 법적처벌도 힘드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골머리만 앓는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 룸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이번 달 7~10일 4일간 양 배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룸메이트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608명 중 382명(63%)의 학생이 '룸메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중 134명(35%)의 학생이 '취침시간, 야식 등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88명(23%)의 학생이 '성격차이'라고 대답했다. 기타에 표기한 학생들은 주로 '청소를 하지 않아서', '더러워서' 등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청결문제를 꼽았다.

또, '룸메이트와 갈등을 빚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250명(35%)의 학생 중 92명(37%)의 학생이 '그냥 다툼 채로 산다'라고 답했고, 86명(35%)의 학생이 '친구와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 했다. 기타 의견에 답한 38명(15%)의 학생은 '그냥 참았다', '술 마시면서 푼다'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 내 룸메이트를 소개합니다

7일~10일 4일간 외대학보 페이스 북을 통해 룸

메이트 제보를 받았다. 그 중 선별한 4가지의 아주 특별한 사연을 들어보자.

#첫 번째 사연 (그의 이름은 '오타쿠')

오래전, 4인실이었던 글로벌배움터에서의 일입니다. 오타쿠인 룸메 때문에 고생했던 사연이네요. 남자 4명이 사는 방. 첫 날 청소이후 한 달 남짓 지나 대정소를 계획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미리 얘기를 하고, 여섯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일, 그 오타쿠 룸메는 나타나지 않았고, 세 명이 물청소까지 싹 끝내자 등장해서 "맛다 오늘이 었지~ 미안~ 깨끗하다! 수고했어" 룸메들 모두 뻔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연시게임(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은 이제 그만! 네, 오타쿠 룸메는 미연시 매니아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마우스 소리에 잠을 깬 저는 책상을 보았지요. 그랬더니 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휴지와 관련된 일이었다고만 해둘게요. 위 사건들이나 오글거리는 말투 그런 것들은 취향으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룸메끼리 술 한 잔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다이어트 한다며 안 먹겠다고 해 알았다고 했고, 치킨, 피자, 맥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술이 도착하자 친구,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피자를 집어 듭니다. 왜 앉아서 끼냐고 하기도 이상하고... 결국 기분상한 나머지 세 룸메끼리만 친해지는 결과를 낳았네요.

#두 번째 사연 (아싸(아웃사이터)인 그녀)

1학년 때 학과 아웃사이터(일명 아싸)인 친구와 한 방을 썼어요. 아싸여서 매일 방에만 있던 룸메는 열한시에 갈잠, 1,2교시가 없어 항상 늦게 일어났죠. 잘 때는 항상 불 꺼달라고, 일어날 때는 항상

시끄럽다고 난리였죠... 그러면서 자신은 맨날 큰 소리로 게임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많은 1학기 때 술을 먹거나 학회가 끝나고 밥 먹고 오면 항상 자고 있는 룸메 덕에 샤워 강제 포기, 양치질 강제 포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사연 (나도 이방 주인이라고)

그녀는 고학번이었는데 계속 자신이 예민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보통 12시 전에 취침했고, 저는 새벽 2~3시까지 깨어있는 타입이었죠. 특히 시험 기간에는 4시까지 방에서 공부했어요. 그날도 역시 스탠드를 가장 약하게 줄이고 책상에서 공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밝아서 잠을 못자겠다며 불끄면 안되냐고 난리였습니다. 특히 정말 화났던 일은 시험 기간이었어요. 다음 날 시험이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내일 시험이 있는데 밝아서 못자겠다며 나가서 공부하면 안되냐 하더라고요. 저도 시험이 있어 공부하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청소를 너무 안했어요. 완전 더러워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말이예요. 청소도 안하면서 맨날 방에 환기가 안되서 먼지 때문에 목이 아프다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이게 방문 활짝 열어놓고 몇 시간씩 닫지 않곤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 또 욕하네요.

#네 번째 사연 (내 방은 찜질방 수면실?)

처음에는 그와 정말 친했어요. 따로 룸메 신청으로 함께 방을 쓰게 된 친구였죠.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날마다 자신의 친구들을 두 명 이상씩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외출 정도로 말이죠. 심지어 그의 친구들이 저에게 미안해 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들과 어김없이 함께 자던 날 밤,

너무 화가 나 잠을 이룰 수 없어 스탠드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책상에 앉아 있더군요. 뒤 돌아보니 그의 친구들이 모두 침대를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어이도 없고 잠도 안 오던 참나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친구들을 데려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 그는 "주위사람들에게 잘 해야 나중에 복받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너는 나한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라고 되 물었습니다. 그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의 친구들 덕분에 도서관에서 잠을 자는 등 방에 들어가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룸메가 "미안하다"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직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별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취침시간, 성격차이 등으로 룸메이트와 갈등을 빚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적인 부분인 경우가 많아 누군가에게 털어 놓기만 할 뿐 전문적인 해결은 어렵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 누군가 해결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나와 룸메 오직 둘 사이의 일이므로 서로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 글을 보는 당신, 혹시 본인이 진상인 룸메는 아닌지 다시 한 번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 당신의 이름은 돌+? 당신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본지에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룸메이트의 유형을 나눠 보았다. 이 중 당신의 유형도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에민녀

시험기간 유독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참지 못하고, 룸메가 이를 걸거나 코를 곤다면 히스테리를 부림. 어두워야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스탠드 불만 켜도 자신은 잠을 자야 한다며 불을 꺼버림.



소심남

서로 인사도 못하고 한 학기 내내 남보다 못한 어려운 사이로 지냄. 창문을 열 때도, 잠을 잘 때도 존댓말로 부탁하는 그. 즉, 부담스럽다.



오지랖남

오늘 자신의 친구가 집에 가는 버스를 놓쳐서 방에서 같이 자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그. 친구란 친구는 모두 데리고 와서 오히려 그의 친구들이 미안해 할 정도. 또 사생활 침해는 왜 이렇게 심한지...



다이어트녀

시험이 하나 끝난 날, 흥분한 기분을 즐길겸 룸메에게 치맥을 제안하지만 아식같은 건 절대 안 먹는다는 그녀. 끝내 살 찌 걱정을 하며, 그녀가 하는 말. "룸메 너나 드세요"



게임 죽돌이

밤새 게임하느라 눈이 충혈된 그. 게임하는 죽돌이 덕에 어젯밤 꿈에 스타크래프트 속 주인공이 돼 전쟁을 했다는...

집, 차, 정장, 지식까지 공유한다

새어나바다 운동, 공유경제를 아시나요

지난 2006년 개봉한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에서는 6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두 여자가 온라인상에서 집을 바꿔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2주의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서로의 집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2006년 당시 '로맨틱 홀리데이'의 감독 낸시 마이어스는 '주택공유 사이트'를 보고 아이디어가 특이해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가 영감을 받았던 '홀 익스체인지 닷컴'은 현재 세계적인 숙박공유 공간으로 성장했다. 그 당시만 해도 독특한 소재였지만 2014년 현재는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공유할 수 없던 것도 공유 한다

아나바다 운동은 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가 발생한 이듬해인 1998년 등장한 말로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만든 운동으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의 준말로 등장했다. 실업률은 점점 증가하고 조금이라도 아껴자는 이들이 아나바다 운동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기존의 아나바다 개념에 소셜 네트워크의 특징이 더해진 신(新)아나바다 운동이 바로 공유경제다.

공유경제는 2011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10개의 아이디어 중 하나로 선택됐으며, 2013년 3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전면기사로 다룰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소유주가 불분명한 특징을 가지며 물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미국의 법학자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말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대표되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와는 달리,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물품뿐만 아니라 생산설비, 서비스 등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 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위키피디아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는 전세계 사람들이 만드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체로 글, 문장, 문단을 고치고 덧붙이며 백과사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백과사전의 소유주는 특정인이 아니다. 이 백과사전을 작성한 사람 역시 돈을 받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동안 우리가 스쳐지나갔던 일들이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

◆돈도 절약 시간도 절약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우리생활에서 대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들이 있다. 고가인데다가 자주 입지 않는 면접용 정장이 공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직을 위해 면접을 앞둔 대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정장이다. 청년구직자들은 면접용 정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온라인 취업 포털사이트 인쿠르트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92%가 새 옷 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바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열린옷장은 사회 선배의 정장을 기증받아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장을 제공한다. 단순히 옷을 기증하고 빌리는 것이 아닌 기증자가 대여자에게 전하는 이야기, 응원 메시지도 함께 공유한다. 취업준비생들은 기증자인 사회 선배들이 남긴 취업 성공비법과 응원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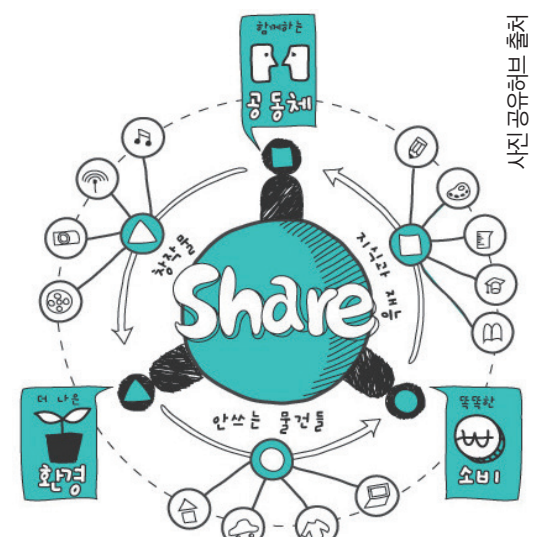
▲열린옷장에서는 면접 시 입을 수 있는 정장을 공유한다. 기부하는 이들이 많아 어떤 옷을 입을지, 사이즈는 없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카셰어링'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도 있다. 일반적인 렌터카 서비스는 24시간 기준으로 대여가능해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잖이 부담스럽다. 카셰어링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차를 이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 속에서 주택가 및 대중교통 환승이 쉬운 곳을 기준으로해 필요한 시간만큼만

차를 빌릴 수 있다. 카셰어링은 렌터카에 비해 4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승용차 1대가 13대를 대체하는 경제 효과를 발휘한다.

카셰어링의 대표적 기업인 '쏘카'를 이용한 한고은(경상·경제 12) 양은 "렌터카를 이용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웠는데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를 알게 됐다"며 "주말에 가까운 곳을 놀러갈 때 저렴한 비용으로 차를 빌려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빈방 공유 서비스 기업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여행을 많이 다니는 대학생들이 어디서 잘까 고민을 하지 않아도 세계 각지의 빈 방을 찾아 저렴한 값으로 숙박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무실, 경험, 지식 등 그 어떠한 것도 공유경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인 쓰는 물건, 지식, 재능 등 그 어떤 것도 공유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공유경제 흐름은

앞서 말했듯이 공유경제는 20세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대비돼 나온 개념이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세계에서는 저성장·저소비·높은 실업률 등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장기적 불황경제 속 공유경제는 급부상했다. 처음 우리나라에 공유경제 개념이 들어왔을 당시 경제침체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우리사회엔 아직 불특정 다수와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유경

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최초로 '공유도시'를 선포했다.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단체와 기업들을 지정해 이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다. 또한 공유경제 특화 프로그램 '공유경제 시작학교'를 진행해 공유경제의 가치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공유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공유경제 바람은 하나 둘씩 지방에 지사를 내 부산에서도 지난 3월 첫 공유경제학교를 열어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고양시 일산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포인트 카드제'를 시행해 특정 카페에서만 운영하던 쿠폰제를 폐지하고 동네의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의 규모는 연간 51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연 80%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북미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공유경제의 특성상 인터넷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 속도 2위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분야	회사명	홈페이지	회사안내
공간	홈스테이코리아	www.homestaykorea.com	외국인 방문객 대상 국내 홈스테이 연결
	(주)코자차	www.kozza.com	한국, 일본주택, 펜션 및 게스트 하우스 공유
	공유독서실	www.gongdok.com	서울 전역 독서실의 좌석을 공유
물품	스페이스 노아	www.spacenoah.net	지식과 사무공간을 공유하여 커뮤니티 구성에 협조
	헬로마켓	www.hellomarket.com	개인간 직거래를 도와주는 모바일 중고장터
	우리올림	www.ourecho.co.kr	쓰지 않는 의기를 빌려주거나 빌림
	열린옷장	www.theopencloset.net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정장을 대여
정보	타임티켓	www.timicket.co.kr	공연당일티켓 할인
	쉐어하우스	www.sherehows.com	일상생활의 다양한 지식을 공유
	소셜통	www.top.cafe.daum.net/socialong/	사회적 경제 소식 및 정보공유
	비엔비 히어로	www.bnbrhero.com	개인 소유의 집부터 한옥마을의 넓은 공간을 전세계 여행자들에게 제공

▲경기개발 연구원에서 제공한 공유기업 정보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운동흥 (골장)

임수진 기자

예의와 스포츠 정신 사이

승부를 겨루는 일이긴 하지만, 스포츠에는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프로배구에서는 상대팀과 네트를 중심으로 마주하기 때문에 상대팀의 코트를 향해 너무 과도한 세리머니를 할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사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될 만큼 이러한 스포츠 정신은 상식적이다.

하지만 경기 중 상대방의 기본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고 도가 지나친 약속을 한 경우도 있다. 3일, 프로야구가 개막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김응룡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 6회 이후 6점차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났을 때 상대팀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로 가끔적 도루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인터넷 뉴스에 보도됐다. 선수협회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지는 않았고, 선수들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포기하는 분위기면 가끔적 자체해지고 했을 뿐이라는 등 부랴부랴 해명에 열을 올렸다.



▲ 8일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 중 이번 시즌 첫 벤치클리어링이 일어났다. 이날 벤치클리어링의 당사자인 KIA의 김주찬 선수는 8점 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도루를 했다.

함께 논의된 과도한 흥분 세리머니 금지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서도 도루 금지에 의아해하는 것은 왜일까? 사실 그 동안 프로야구에서는 큰 점수 차이가 나고 있을 때 앞서는 팀이 도루를 하는 등 점수를 내기 위한 작전을 펼치며 지고 있는 팀의 투수가 빈볼을 던지는 등의 일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선수들끼리 도루를 자제하자고 공공연히 약속하는 것은 팀의 큰 점수차 승리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정당당한 게임을 바라는 팬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

한편 영국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근 퀵릴 제스처, 즉 반(反)우대주의 세리머니를 한 선수 5명에게 징계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김태균 선수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한 차례 흥역을 치렀던 우리나라 프로야구계도 이 소식이 먼 나라 얘기 같지 않다. 선수들끼리 상대방을 위해 도루 금지보다 차라리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고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상대팀과 팬을 존중하는, 정말 예의를 위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어깨너머 듣는 교양

김희경(교양학부, 만화와 애니메이션 세계 과목 외래교수)

애니메이션을 향한 첫걸음

지난 해 겨울부터 이번 해 초까지 이어진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열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다. 세계 각국의 노래 춤 한다는 가수들이 부른 주제곡 '렛 잇 고(Let it go)'는 유튜브를 도배했고, 하루 종일 주제곡을 따라하는 딸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싶다는 엄마(필자도 같은 심정), 겨울왕국 그림책, 영어교재, 스티커북 등 다양한 현상과 파생상품을 낳았다.

그래서인지 여느 해와 다르게 방학이나 특별한 시즌이 아닌에도 3월부터 계속 1~2편의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일본 등 애니메이션 제작국도 다양하다. 우연한 흥행을 기대하는 것인지, 상승된 애니메이션의 위상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매력적인 현상임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애니메이션은 무엇일까? 영화나 드라마와 어떤 점이 다르기에 그것에 대한 기대치도 다른 것일까?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애니메이션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아쉬움을 느낀다. 영화관을 나서거나 TV에서 뽀로로가 사라지는 순간 캐릭터와의 헤어짐을 안타깝워한다. 그것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속 자신과 비슷한 캐릭터가 반갑고, 엉뚱한 캐릭터가 즐겁고,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온갖 세상이 다양하게 펼쳐질 때 문일 것이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주기 때문일 것이다.

교양수업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세계'에서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개념·역사·세계의 캐릭터·세계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제작기법·스토리보드 및 영상 제작 등을 배운다. 이론에 해당하는 개념 부분에서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역시 인간과 사회의 소통을 위한 문화로 탄생한 것이므로 세계 곳곳에 있는 고대인의 흔적을 찾아보고,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을 살펴 각자 전공하고 있는 나라의 캐릭터를 조사해 발표하는 '세계의 캐릭터' 과정보도 진행한다. 실무부분에서는 2D, 3D, 인형, 클레이, 모래, 그림자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과 스토리보드 작성법을 배워 실제로 스토리 보드를 제작해 본다. 학생에 따라서는 기획한 스토리 보드대로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한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은 그것의 양이 많건 적건, 러닝타임이 길건 짧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제작했다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만 만드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은 본 수업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꿈과 욕망의 매개체라는 주제 하에 그 세계로 첫발을 내딛기 위한 기초단계를 배운다. 한 발짝만 발을 내딛는다면 여러분도 꿈과 욕망의 매개체를 만들 수 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열정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품만으로!



우리학교 일본학부 최재철 교수에게 듣는 일본 문학 이야기

소소한 일상에서 찾는 문학의 묘미

우리에게 일본 문학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10일 개봉한 영화 '빙향하는 칼날'의 원작 작가는 국내에 '용의자 X의 헌신'으로 잘 알려진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다. 지난 달 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에쿠니 가오리와 츠지 히토나리가 함께 쓴 '냉정과 열정 사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의 판권은 16억원을 넘는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출판계와 독자들에게 일본 문학은 끝없는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독자들 사로잡은 일본 문학의 매력은 무엇일까?

일상을 이야기하는 일본 문학

최재철 일본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하루키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기를 표현이 재미있다는 점,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명성을 들어 설명한다. 최 교수는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소설과 일본 소설의 차이를 또 다른 이유로 꼽는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문학은 남북한 문제나 이데올로기 문제, 민주화 투쟁 등에 관심을 두는 '치열한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에 비해 "일본 문학은 뚜렷한 절정 부분 없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을 '사소설(私小説)'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외에도 대부분의 일본 작가들은 소소한 일상을 통해 섬세하게 작품을 전개하는 '사소설(私小説)'적 경향을 보인다. 일본 문학은 다른 문학과 달리 자전적 특성을 띤다.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를 작품 안에 투영하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1000년 전에도 일기나 수필 문학과 같이 작가 자신을 기록하는 문학은 일본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러한 일본 문학의 자전적 특성은 근대 일본에 유입된 서양의 문예사조인 '자연주의'를 통해 사소설적 경향으로 재창조됐다.

최 교수는 자연주의가 일본 문학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변형됐다고 설명한다. 서양의 자연주의는 해부학, 의학에서 출발한 만큼 소설을 쓸 때 분석적으로 사회와 인생을 파헤치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시마자키 도손은 '파계'를 통해 당시 사회의 신분 차별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분석과 비판적 기능은 군국주의라는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모습을 띠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메이지 유신을 경험하며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일파가 탄압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작가들이 개인의 일상사, 남녀의 성적인 문제 등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가 이렇게 변화해 소설을 더 재미있게 만들었고 더 많은 독자들이 찾게 된 계기가 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의 설명처럼 일본의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한 자연주의는 사회 대신 개인의 내면을 해부하듯 분석하게 되면서 사소설적인 경향으로 흘러갔다. 사소설은 집안일이나 교육의 문제, 고부 갈등과 같은 작가의 일상사와 작가 자신의 내면을 다루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자전성과 함께 사소설적인 경향에 영향을 준 것이 일본 문학 특유의 섬세함이다. 최 교수는 "일본 문학의 원류는 일본 고유의 문자인 '카나'로 쓰여진 카나문학이다"라며 "우리나라가 처음 한글을 창제했을 때 언문이라고 무시하며 여자들이 주로 쓰기 시작했듯 카나도 여자들이 주로 썼다"고 설명한다. '겐지이야기'와 같은 여류문학의 영향을 받아 일본 문학은 섬세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렇듯 일본 문학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여류문학에서부터 내려온 특성과 합쳐져 일본의 현대 문학은 일상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표현한다는 개성을 갖게 된 것이다.

작가 자신의 일상이나 주변의 일들을 신변잡기적으로 세세히 묘사하다 보니 일본 문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개를 갇웃거리기도 한다. 최 교수는 "일본 현대 문학이 주로 다루는 소재가 일상 생활이다 보니 대단한 클라이맥스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소소한 일상을 다루는 수필적인 특징을 띠다 보니, 우리나라 문학이나 서사성이 강한 서양 문학을 주로 접해 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루하다, 어다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르겠다, 밋밋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사회적 거대한 틀이 움직일 때도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그래서 일상을 묘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거창한 사건보다도 아주 소소한 일상의 장면을 통해 인생의 비밀이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더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고, 독자도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의 틀이 움직일 때도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아주 소소한 일상의 장면들 속에 인생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일본 문학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이유

한편 일본 문학은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매 해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된다. 이렇듯 일본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노벨 문학상 수상을 위해서는 물론 뛰어난 작품성도 중요하겠지만 작품이 세계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199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는 장애인과의 공생이라는 문제를 주로 다루며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주로 발표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96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그는 보편성보다는 일본의 지역적 특수성을 주로 표현한 작가라는 평을 듣는다.

작품성 뿐만 아니라 번역을 통해 세계에 많이 소개되는 것도 중요하다. 최 교수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경우 노벨 문학상 수상 당시 소수 언어권을 포함해 20여개국 언어로 135편 정도의 번역이 나와 있었다"라며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 교수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문화력이다. "단편 소설의 귀재라고 불리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과 '뎀불 속에서'를 각색해 만든 영화 '라쇼몽'이 1951년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그랑프리 수상하면서 일본 문학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며 최 교수는 우리나라 문학계의 세계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문화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교나 통상, 스포츠 분야에서는 국력이 강해졌다고 하지만 문화력은 약하다는 것이다. "일본 문학이 대중문화의 수출과 함께 본격적으로 세계에 전파됐듯 우리나라도 한류와 같은 대중문화의 수출과 함께 이제는 인문학 등 본격적인 문화의 수출을 시작해 문화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번역과 같은 문학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학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도 언젠가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애증의 관계, 그 속에서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의 관계는 문학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최 교수는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애증의 관계임에도 문학계에 있어서는 일방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관심이 많다"고 말한다. 역사 서술과 독도 등 다양한 문제도 남아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에게 가까운 이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까운 이웃 나라에 벌어지는 일에 갖는 관심이 일본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표현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고전 문학에서는 우리나라를 우러러보는 양상이 많이 드러났지만, 근·현대 문학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하, 비애감, 동정, 호의 순으로 인식이 변해왔다. "예전에는 '김치를 먹어서 마늘 냄새가 난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든다' 등 비하하는 말이 많았다면, 요즘은 우리나라를 대등한 관계로 서술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 대해 알게 되고, 한국인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등한 경쟁의 대

상으로 보게 됐다는 것이다.

양국의 정치적인 관계는 좋지 않지만 일본 문학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고, 일본 문학에 나타난 우리나라에 대한 묘사도 호의적으로 바뀌어왔다. 최 교수는 이런 점을 통해 양국의 관계에 문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 교수는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1970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 펜클럽(Pen Club)* 회의에 참석하며 남긴 말을 예로 들었다. 당시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들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한국 방문을 반대했다. "당시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정치 회의는 무산될 수 있지만 문학 회의는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을 남겼다"며 최 교수는 현실적인 한일 관계는 정치·외교로 잘 풀리기 어렵더라도 문화·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처럼 문학이 그 답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일 관계에 남아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문학을 통한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문학을 통해 서로 이해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다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며 미소를 지었다.

문학을 통해 양국이 서로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최 교수의 기대처럼, 우리나라 독자들은 일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일본 문학을 통해 표현하고 해결해왔다. 일본 문학을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인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개인의 일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표현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섬세함이 일본 문학에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게 되는 묘미를 더 해주는 것은 아닐까.

*국제 펜클럽: 세계 각국의 시인, 극작가, 편집인, 평론가, 소설가 등 문필가들이 문학을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를 촉진하고자 조직한 문화 단체. 출처:네이버 국어사전

글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사진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최재철 교수의 주요 저서 및 논문>

- 저서: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5년
- 논문: 『한국의 일본근현대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2005년과 2012년의 연구 조사 비교-』, 《日語日文學研究》 83집, 2012.11
- 『명문으로 읽는 일본근대문학사』, 제이앤씨, 2007.
- 『韓流百年の日本語文學(編著), 人文書院(일본), 2009.
- 『일본근대문학의 자연·계절의 발견과 그 전개』, 《日語日文學研究》 84집, 2013.2
- 『일본문학에 나타난 계절 표현의 유래-춘추유월 경쟁 소재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88집, 2014.2
- 『문학, 일본의 문학-현대의 테마-(공저), 제이앤씨, 2012.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임수진 기자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 투표로 끝나지 않길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눈앞에 과제와 공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가장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중간고사를 대체할 조별 과제다. 사실 조별 과제는 대학생들에게 애증의 존재다.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어떤 과제보다도 술술 풀리겠지만 한 사람만 무임승차를 하더라도 과제는 뜻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지난 제 48대 총학생회 재선거 기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 조별 과제만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투표 기간 중 점차 올라가는 투표율과 국제학사, 인문관 앞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선 학생들을 통해서였다. 외국인 재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증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같은 학생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결국 2774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선거가 성사됐고 81.58%의 찬성으로 총학생회의 빈 자리가 채워졌다. 학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학생 참여가 드문 대학 사회에 희망을 엿볼 수도 있었다.

이번 학기 총학생회를 취재하면서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총학생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학생 스스로라는 것을 재차 마음 깊이 새겼다. 학생 없이 총학생회는 세워질 수 없고, 학생 없이 학생 대표자가 일을 추진할 수도 없다. 비상대책위원회보다 총학생회에 힘이 더 실리는 것도 학생들이 직접 세운 대표이기 때문이다. 총학생회가 세워졌더라도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 제 48대 총학생회가 들어선 것에 대한 축하 인사는 당선된 '외대스캔들' 선거운동본부보다 학생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학생의 투표를 통해 대표자가 선출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제 남겨진 것은 총학생회가 2774명의 참여, 2263표의 찬성표만큼 학생들이 원하는대로 잘 하고 있는지, 처음의 다짐대로 8000명의 학우들을 위해 뛰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감시다. 이 남겨진 역할에 무임승차한다면 총학생회가, 더 나아가 우리학교가 학생의 입장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더라도 그 책임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뿐이다.

학생의 참여만큼이나 학내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 또한 매 순간마다 절실히 느낀다. 개인적인 일로 기자라는 본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다. 기자로서 학내의 다양한 소식을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에 대한 감시와 공정한 보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홉스토어(HUFStore)

외대학보와 함께 하는 중고장터, 홉스토어(HUFStore)

-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번역의 이론과 실제' 교양도서) / 010-2644-0459
- 아렌트 정치의 존재이유는 자유다(홍원표, 한길출판사) 010-7740-3117
- 리더십(김재득, 대영문화사) tbtb001@hanmail.net
- 권투 샌드백/010-5103-1088
- 그리스의 신과 영웅(조명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raonjaena@naver.com
- Fila(필라) 어린이용 자전거 14인치, 5만원. Fila Children Bike 14inch wheel, 50,000won. jin93@hanmail.net

- HUFStore에서는 본교 재학생(외국인 교환학생 포함), 교수,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외대 구성원들의 중고물품 판매, 구매, 교환, 무료나눔 광고를 받습니다.
- 외대학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88lys@hufs.ac.kr로 보내주세요.
- 매호 대략 10개 이내의 광고가 외대학보 지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거래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At HUFStore we accept advertisements for buying, selling, exchanging, and sharing of every kinds of second-hand goods or items from all HUFsans including students, foreign exchange students, staffs and professors.
- Please download and fill out the form on our Website and send it to 88lys@hufs.ac.kr
- Around 10 applications will be advertised at each issue in our newspaper, HUFStore corner.
- 외대학보(Oedaehagbo) does not hold any legal responsibility in the transaction. Each trading party is responsible for all transactions.

일시
정지

눈썹 모양만 살짝 바뀌도 인상이 달라 보여요!



지난 3월 27일 영어대학 학생회에서 새내기들을 위한 메이크업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홍지은(영어·영문 12) 영어대 학생회장이 대표로 눈썹 정돈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강연을 받은 신입생들! 빛나는 대학생활만큼 빛나는 외모 되시길!

임수진 기자 88lys@hufs.ac.kr

지나호를 말하다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김채민(사범·한교 14)

독자와 함께하는 외대학보가 되길 바라며

지난 호는 968호에 비해 한층 밝고 즐겁게 외대학보를 비평할 수 있었다. 그만큼 기자들이 기획에 더 신경을 쓰고 취재에 힘을 기울였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직 독자와 함께하기에는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우선 몇 기사들이 학교 구성원 일부만의 의견을 다룬 점이 아쉬웠다. 1면의 '정시입학생 관련 기사와 3면의 LD학부 기사는 학생들의 입장만 있고 학교 측의 의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없었다. 또한 6면에서 다룬 학내노동자에 대한 기사 역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입장이 담겨있었다. 다음 호에서는 독자를 고려해 양측의 입장을 기사에 모두 담아줬으면 한다.

다음으로 독자를 고려한 표제 및 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다. 1면 '낙동강 오리알?'과 3면 기사의 'LD학부 두 학생회?', 8면 운동장의 '누구를 위한 연맹?' 등 표제에서 상당히 많은 물음표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표제나 부제는 주의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독자의 입장에서는 반발 투로 느껴진다. 독자를 좀 더 존중하는 느낌이 드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한다.

또한 9면 표제에는 '~말하다.'라고 마침표가 들어가는 실수가 있었다. 표제와 부제는 독자들이 관

심 있게 보는 부분이니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다소 무겁고 어두운 부분이 많았다. 11면의 '국·부장 고경칼럼'은 다양한 주제가 아닌 '노동'관련 내용만 있었고, 10면 '뒷담하는 기자'도 기자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 독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8면의 'SNS'관련 기사나 11면의 '직원의 말풍선'처럼 독자들에게 흥미 있고 도움이 되는 기사도 있었다. 반면 12면의 인터뷰 기사는 지난 호에 비해 기획은 좋았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라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으로 다소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아쉬웠다. 요즘은 신문의 내용만큼 표나 사진도 독자를 위한 좋은 정보가 된다. 따라서 선명하고 보기 쉬운 표나 밝고 다채로운 사진을 실어 내용 전달이 쉽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배에게 듣는 노하우나 학교 근처 맛집 소개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제나 코너도 좀 더 많이 고안했으면 한다. 기사 내용을 비롯한 신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호를 말하다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유지인 (동유럽·형가리어 12)

외대학보의 발전을 기대하며

지난 호 LD학부 관련 심층보도는 재학생이 우리 학교의 신설학과에 관심을 높이고 LD학부에 대한 실질적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기사였다. 그러나 글로벌배움터에 생긴 한국학과에 대한 심층보도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만약 우리학교에 생긴 신설학과를 묶어 특징들을 비교·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면 재학생들에게 보다 큰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대학보의 지면 활용도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 지면에 한 가지 기사가 게재되는 등 넓은 지면에 비해 적은 기사 수는 구독자에게 학보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킬 것 이라고 생각한다. 한 지면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기사를 게재해 다양한 기사 거리를 제공하는 외대학보가 되길 희망한다.

또 기사 헤드라인에 관한 것이다. 신문의 생명은 흥미와 정보를 유발하는 헤드라인에 있다. 구독자들은 흥미를 유발하는 헤드라인을 가진 기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외대학보에 실린 다양한 기사들은 대부분 긴 헤드라인을 가진다. 예로 지난 호의 "양 배움터에서 새내기들을 위한 릴레이 특강이 시작됐다."의 헤드라인은 기사에 대한 흥미유발 보다는 내용을 요약

해 서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홉스토어 디자인의 구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수 많은 학생들이 기숙 또는 자취를 한다. 그로 인해 전공 책 외에도 다양한 중고물품이 필요한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홉스토어 광고는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 학보에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 홉스토어 지면이 가독성 있게 디자인 되거나 흥미있는 디자인이라면, 재학생들의 참여가 더 활발하고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다음은 인터뷰면 질문지 구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학교의 자랑스러운 인물에 대한 기사는 재학생과 후배에게 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여파를 준다. 그런 만큼 평범한 질문 보다 참신한 질문으로 구성된 인터뷰를 보고 싶다. 또한 재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가 좀 더 다양하게 게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존의 독자 참여란을 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주요 구독자인 재학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외대학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정말로 너희가 아니길 바라!

직원의 말풍선

윤승미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연구원



신입생 성희롱 예방교육이 한창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신입생들이 입학한 한지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수능의 긴 고통에서 벗어나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활활 날아오르는 신입생을 보면 좋을 때라며 부러움이 확 일지만 가슴 한 쪽에서는 성희롱으로 인한 난처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특히 성년이 되는 20세에는 많은 일들을 경험한다.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허용된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며 MT도 가고 연애도 하고 각종 대외활동부터 시작해 동아리 등

여러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에서 음주가 빠질 수 없다. 신나는 활동과 당당히 먹을 수 있게 된 음주가 합쳐지는 순간, 많은 사건이 생기기 마련이다. 음주는 우리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신입생이 돼 몇 번 본적도 없는 친구들과 술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어울리면서 알게 모르게 스킨십이 일어나고 하물며 자신의 기억에도 확신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자주 빠지게 된다. 누구에게나 성희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방할 수 있으며 예방을 하지 못했다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우리학교에 오기 전에 실제 경찰서로 신고되는 사건을 많이 다뤘는데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실제로 술에 취해 있었다. 그만큼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들은 성범죄의 표적이 된다. 가해자 역시 음주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술이 사라진다면 성폭력 피해가 95% 이상은

줄어들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학내의 사례는 비밀 보안 때문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음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신입생을 비롯한 모든 외대인들이 음주 당시에 서로 조심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불쾌감을 표시하고 즉시 행위를 중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와 대화 속에서 정황적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의 대부분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해보고 싶은 것'으로 채울 수 있기에 대학교 새내기 시절이 그리도 찬란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억압됐던 자유를 한꺼번에 만끽하느라 자신을 챙길 겨를이 없진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외대인들 모두가 성희롱의 피해자가 그리고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만 평



빈 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상지대학교, 비리 재단 복귀...반면교사로 삼아야

▲지난 3월 31일 강원도 소재의 상지대학교에 김길남 이사장이 선임됐다. 김길남 씨는 김문기 씨의 차남으로, 김 씨 일가는 1974년 김문기 씨가 이사장을 맡은 뒤 1993년 교비 횡령, 부정 입학, 교수채용 비리 등으로 퇴출된 바 있다. 현재 상지대의 정이사 9명 중 6명은 김 씨 측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비리로 얼룩진 구(舊) 재단 인사들이 20년 만에 학교를 다시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번 상지대 비리 재단 복귀 사태에 교육부 책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1993년 김문기 씨 구속 후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던 상지대는 306억여 원이던 자산이 1898억여 원으로 성장하는 등 본궤도로 들어섰다. 이후 2004년 '상지대가 정상화 됐다'는 교육부 판단 하에 정(正)이사체제로 돌아섰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의 청구소송으로 '임시 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이는 상지대의 앞길을 다시 한 번 가로막기 시작했다. 2010년 교육부 산하 산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

전이사에 과반수 추천권 보장'지침을 근거로 이사 9명 중 4명을 구 재단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구 비리재단에 복귀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지난 해 2월 유재천 상지대 총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이사 승인 취소, 이사회 감사 요구를 반려하기도 했다. 구 재단 인사가 이사회에 자리 잡은 뒤 상지대는 1년이 넘도록 차기 총장을 선출하지 못했고, 3년째 준예산을 집행하는 등 또다시 파행 길로 접어들었다. ▲우리학교도 이와 비슷한 위기가 있었다. 지난 1998년 재단이 개입한 임시 비리와 법인 예산 유용 등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치러 각종 불법·파행 운영이 확인되자 당시 이사들은 모두 해임됐다. 이후 6년간 관선이사체제를 지내고 2004년 지금의 정이사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공금횡령과 사문서 위조로 구속된 바 있는 구 재단 이사 박승준 씨는 2012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현직

이사 8명의 선임 무효'라고 판결하며 구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2007년 상지대의 판례와 같은 취지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다행이었다. 아니, 당연한 결과였다. 2013년 박승준 씨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결과를 뒤집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에도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현 이사진 선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는 엄연한 설립자가 있을지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의 교육기관이다. 사립학교법 제 1장 제 1 조에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명하고 있다. 이번 상지대 사태에 교육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학교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건전하고 발전적인 이사회를 위해 힘써야 한다.

사설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서

4월 20일로 우리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는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전후복구가 한창이던 1954년, 5개 학과로 출범한 우리학교는 2014년 12개 학부 64개 학과로 성장했다. 우리학교는 개교 이래, 진리·평화·창조의 창학 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 탐구인·국제적 한국인·독창적 전문인의 양성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와 같은 건학 이념은 외대의 젊은이가 세계가 요구하는 전문 지식과 어학 능력을 갖추고, 11만 명의 졸업생들이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 및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학교를 둘러싼 환경은 다양하게 변화했다. 1954년 2억 4천 200만 달러였던 무역액은 지난 해에는 1조 752억 달러로 증가해 수출액은 전 세계에서 7위, 수입액은 9위에 자리했으며,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40개에 불과했던 1954년과 달리 2013년에는 433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대학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학교 역시 격동의 교육환경 속에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내·외국인 교원의 확충, 국제교류프로그램의 확대, 효율적 학사행정과 교육 정보화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의 구축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교과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 수준 높은 교육 투자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외대의 젊은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학교의 사명이다. 시대가 변화하고 환경은 달라졌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외대인의 모습은 진취적 사고로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며, 그 변화를 활용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창의적 지식인이다.

오늘도 외대 교문을 지나고 있는 그대들이여, 무엇을 꿈꾸며 강의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그대들의 발걸음에 힘이 실릴수록, 그대들의 표정에 자신감이 넘칠수록, 그리고 그대들의 생각이 바람을 지향하고 있을수록, 우리학교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 아닌가. 자신감을 갖고 더 멀리 보자. 오늘의 고난을 희망의 씨앗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의 힘을 키우자. 외대, 새 교문, 그리고 진리·평화·창조. 내 젊음을 걸로 애써 배워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위태로운 학생사회, 대표자들 각성해야

지난 3일 서울배움터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장이 새로 선출됐다. 김범(국제 11)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근 3년간 학생대표자 자리를 지냈다. 반면 글로벌배움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체제가 등장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 이틀간 있었던 총학생회 재선거의 후보자등록부터 좌절된 것이다. 홍성훈(자연·수학 08) 글로벌배움터 비대위장은 지난 해 총학생회에서 중앙집행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지금 양 배움터 총학생회와 비대위 상황을 보자니 앞날이 걱정스럽다. 먼저, 서울배움터의 총학생회 재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3월 27일, 언론협의회(외대학보, 아거스, 교지, 외대교육방송국으로 이뤄진 협의체)와의 정견토론회에서 당시 후보자들은 공약에 있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3월 보궐선거, 준비할 시간이 누구보다 많았을 테지만 손가락만 톡 대면 쓰러질 듯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약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공약만을 잔뜩 들고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 이지원(동양어·인도어 12) 서울배움터 부총학생회장은 공약의 부실함을 당당히 인정했다. 이들의 태도는 '자신들은 출마만 하면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처럼 비취질 정도였다.

글로벌배움터 역시 맘이 편치만은 않다. 현재 비대위단은 8학기 재학 중으로 다음 학기에는 또다시 비대위단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서울배움터에서는 투표율 미달로 선거 무산 방지하기 위해 예비일을 둔다. 하지만 글로벌배움터 비대위에서는 이번 선거에 대해 홍보도 부실했음 뿐더러, 예비일도 마련해두지 않았다. 비대위는 전체학생들의 투표나 평가를 받지 않았기에 지난 8일 정기총회에서 그들의 특별한 안건도, 그만큼 추진력도 없어 보인다.

우리학교 60주년을 맞는 재도약의 시기에 이렇듯 양 배움터 학생사회는 더할 나위 없이 위태롭다. 학생대표자는 학생들의 지지에 기반한다 하나 임무가 막중한 만큼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 직원의 말풍선(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신민지(통번역·태국어 11) 010-4002-0299, 86hufspress@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민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신민지
부장 이은걸

제작 경보미디어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www.oedahagbo.com
facebook /newhufspress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산다

김상국(마인어 84) 비타민하우스 대표



전라남도 완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에 진학하며 처음 상경했다. 그 고졸 신입사원 5명과 소자본으로 10여 년 만에 '비타민하우스'라는 큰 성공을 이뤄낸 그는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의 미소가 이미 '김상국'이란 사람을 말해주고 있었다.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배움터 마인어과를 졸업했다. 현재 비타민하우스 대표직을 맡고 있다. 원래 꿈은 장군이 되는 것이었지만 육·해·공사 모두 떨어져 대학 입학의 목적은 오직 ROTC였다. 꿈의 종착지점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정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ROTC입관 반지를 아직까지 끼고 있다. 비록 현재 군에 남아 있지 않지만 장교로서의 경험은 현재 비타민하우스의 경영철학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올랐지만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긴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자. (웃음)

그는 누구보다 길고 특별한 자기소개로 유명하다. 누구든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스토리로 자신의 자존감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는 어느 자리에서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자기소개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스펙보다 강한 '스토리'의 힘을 강조하는 그는 이미 시대를 앞서 있는 듯하다.

- 달도라는 완도의 작은 마을 넷째 아들로 태어나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다. 사업으로 성공하기 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좌절을 모르고 실패를 모르는 인생은 없다. 가난했던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나 서슴없이 풀어놓는다. '달도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아들이 바로 김상국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학에 입학한 1984년에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문팔이였을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나 자신을 인정하라'는 것은 그 때부터 정한 나름대로의 인생 첫 번째 원칙이다. 대학생이 된 나는 지하철에서 신문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 당시 내 위치였다. 또 2학년 때는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해물을 팔았다. 새벽 2시부터 등고 전까지 장사를 했다. 4학년 때는 주유소에서 생활하면서까지 돈을 벌었다. 기름을 넣으면서 어렵게 공부했고, 임관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했다.



▲지난 해 8월 김상국 대표는 전세계 11개국 국민대표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한국대표로 발탁됐다. 당시 인도네시아 국왕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끊임없는 '전공'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장군이 되고 싶었으나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 전역 후 일반 학생들처럼 기업에 취업했다.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고 싶어 미원에 입사했다. 미원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회사로 꽤 유명했기 때문이다. 그 후 대상 웰라이프 건강사업부에서 마지막 3년을 더 일하며 건강기능 식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간 미원 대리점을 운영하다 광주에서 2001년, 비타민하우스를 시작했다. 운 좋게도 그 해부터 식약청에서 비타민이 식품비타민으로 허가돼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수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비타민하우스는 이번 해로 14년째를 맞았다.

- 비타민하우스가 이제는 비타민 대표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10여 년 만에 이만큼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선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타민하우스의 성공요인을 꼽자면 먼저 숍인숍(shop in shop) 비타민하우스, 선결제 시스템, 상담영양사 제도, 연령대와 몸 상태를 고려한 맞춤비타민, 사내일보(이하 사보)가 있다. 또 홈쇼핑 입점과 국내 최초로 백화점에 입점하게 된 큰 기회가 있었다. 사실 모든 기회는 위기에 둘러싸여 온다. 성공요인으로 꼽은 숍인숍 역시 위기가 기회가 된 예이다. 의약분업이 되자 약사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조제하느라 우리 제품을 팔아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바뀐 약사를 대신해 약국에 판촉여사원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판촉여사원으로 영양사가 직접 상담해 주는 것이 적합하겠단 생각에 탄생하게 된 것이 '상담영양사'이다. 연령대별 맞춤비타민 역시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남성, 여성, 임산부 등의 라벨과 가격표가 제시돼 있으니 구매 과정이 간편해 약사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위기가 느껴질 때마다 그 위기에 둘러싸여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기의 주변을 꼼꼼히 살피다 보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위에서 꼽은 다른 성공요인들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사보를 성공요인으로 꼽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사보는 소통이다. 사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보를 만들겠다는 것과 회사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목살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사를 설립한지 14년이고, 사보가 만들어 진 것은 10년이 넘었다. 회사 시작과 동시에 사보를 만든 것이다. 사보 제작에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회사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했다. 신규 거래처에서 비타민하우스를 모르는 약사에게 사보를 내놓으면 엄청나게 놀란다. 작은 기업에 사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약사에게 비타민 하우스는 대기업인 것이다. 또한 사보는 가보다. 사보에 실리면 회사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낄 것이며 전보다 더 회사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내적으로 직원을 고취·결집시키고 외적으로는 그 어떤 경쟁사를 만나더라도 우리 회사를 당당히 내보일 수 있다.

“콘셉트는 따라할 수 있지만 비타민하우스의 혼은 따라할 수 없다”

이제까지 비타민하우스의 제품이나 컨셉을 똑같이 벤치마킹한 회사들이 있었지만 다 망했다. 왜 비타민하우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을까. 김상국 대표는 그 이유를 대표의 경영철학이 회사의 혼, 문화로 자리 잡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를 위해 비타민하우스에서는 특히 직원교육에 힘쓴다. 그럼으로 그의 생각이 전 직원들에게 잘 전달되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한 교육의 힘은 직원들을 생동감 넘치게 했다. 그는 “이런 비타민 제품은 브랜드와 가격, 함량만 다를 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혼은 그 어느 회사도 따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됐을 정도로 막대한 사회공헌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 기부활동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앞으로의 사회공헌 목표는 어떤가?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은 많은 이익을 실현 후 사회 공헌을 시작한다. 여기서 문제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부터 할 것인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때부터 사회공헌을 시작할 것인가이다. 비타민하우스는 후자이며 공헌 횟수는 셀 수 없이 많다.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규모가 큰 기부를 하는 것이 목표다.

그의 기부활동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졌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의 공헌을 인정받아 지난 해 8월 17일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대표 국민으로 방문했다.

-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듯한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

장교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 왔지 마인어를 전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언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대학 진학을 위해 3분 만에 결정한 마인어가 나에게 이런 행운이 될지 몰랐다. 비록 아직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곧 인도네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가자마다(gadjahmada) 대학'에 10여 년 동안 일 년에 2번씩 비타민하우스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양승윤 마인어과 교수가 만든 국제한국인도네시아 학회(INAKOS)에 7년째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달 30일에는 인도네시아에 기조연설 또한 예정되었다.

그는 “내가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인줄 알아. 인도네시아 하면 무조건 좋아”라며 자신이 본인의 학교, 전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교에 대한 자부심도 없으면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나”며 자신이 마인어과 동문임에 굉장한 자부심을 표했다.

그는 이번 해 '아름다운 남세자' 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상공의 날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0년에는 모범납세자상을 받았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2000년 회사경영을 시작해 이제는 대기업 반열에 오른 '비타민 하우스'를 투명한 기업정신으로 이끌어 나가는 김상국. 그는 “정상에 섰을 때 가장 겸손하라”는 것을 강조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정상에 섰을 때 반드시 허리를 굽혀 아래를 내려다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